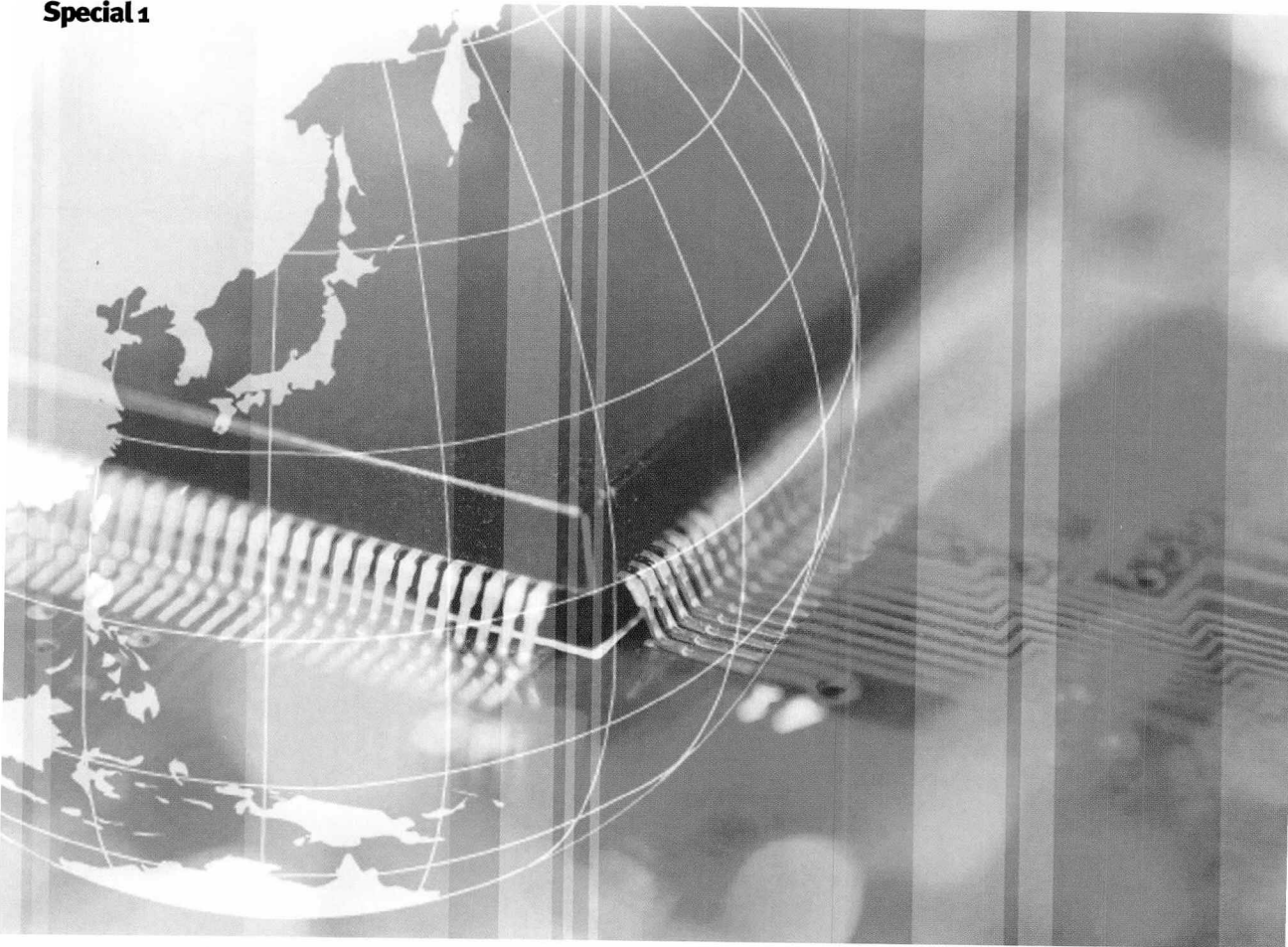


Special

1. 정보보호산업 정책동향
2. 국내 정보보호 산업동향
3. 정보보호 기술동향





최우혁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사무관

정보보호산업 정책동향

2002년은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

1998년의 IMF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인터넷 보급 확산과 전국적인 초고속망 구축 그리고 벤처투자활성화 등 IT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을 과시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동통신가입자 3,200만명, 인터넷 사용자 2,627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2002. 12월 기준) 달성 등의 괄목한 만한 성

과를 거뒀고, 고도화된 IT인프라와 활용능력의 향상은 집안에서나 이동 중에도 정부 민원을 처리하고(전자정부 구현), 은행업무와 각종 거래를 수행하며(인터넷 뱅킹, 쇼핑), 영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e-life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도화된 IT기반위에서는,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해킹 건수가 매년 2~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1월 25일에 발생한 웹바이러스에 의한 전국적 인터넷 마비현상은 우리의 IT인프라가 정보화 역기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에 의한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함께 반드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 개인정보침해, 스팸 메일 및 불건전 정보유통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정보보호산업은 이러한 역기능을 대처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은 세계시장이 2001년 168억불에서 2007년에 765억불로 연평균 28%대의 고속성장하고(가트너그룹), 국내시장도 2002년의 3,964억원에서 올해에는 약 30%가 성장한 약 5,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성장력이 높은 매우 유망한 산업이며, 사이버 상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이버방위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일부 성장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기술면에서도 응용기술에 비해 원천기술의

확보수준이 낮고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IT인프라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방위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시장 확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그리고 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업체, 학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외국 대형업체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정보보호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 민간부문에서 IT 시스템 구축에 비례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보급하고 정보보호시스템구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활성화 및 정보보호 컨설팅 확산을 통해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업체들에 제공하고, 다국어로 정보보호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며, 기존에 추진



해오고 있는 주요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790억원을 투자하여 암호알고리즘, 침입탐지·대응 및 피해 복구 등 정보보호 핵심 기반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민간에 이전할 것이다. 또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정보보호제품 Test-lab 운영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보안 기술포럼, 생체인식포럼 등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표준안 개발에 주력 및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여 국내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셋째, 대학내 정보보호연구센터와 정보보호 전공 확대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교육교재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정규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정보보호 자격제도의 활성화, 민간 정보보호교육기관 육성 및 산·학간 연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캠페인, 정보보호문화운동, 정보보호분야 논문 공모 및 학술행사 지원, 그리고 정보보호기술과 제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전국민이 세계 최고 IT수준에 걸맞는 정보보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외국 대형업체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정보보호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세계 정보보호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체는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